



“제자·지역민에 멋진 모습 보일게요”

'연개소문'서 진평왕 출연하는 동신대 차두옥 교수

종경 텔런트인 동신대학교 연기영상학과 차두옥(49) 교수가 SBS 주말드라마 '연개소문'에 신라 진평왕 역으로 출연한다.

차 교수가 등장하는 것은 오는 12일 방영분인 11회부터. 차 교수가 맡은 진평왕은 수·당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인물로 평가된다.

차 교수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모든 제작진이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다”며 “오랫만에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미는 것인 만큼 제자와 지역민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차 교수는 KBS 성우 17기와 텔런트 11기로 방송계에 입문해 TV드라마 '산유화', '옹의 눈물', '사랑이 꽂피는 나무'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오윤아 '부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부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레이싱걸 출신 텔런트인 오윤아가 선정됐다.

금강제화가 7월13일부터 8월6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자 6천 29명 중 66%가 오윤아를 뽑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직원 및 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평선 갑작이 뛰어나면서도 다리가 예쁜 연예인 5명을 1차 후보로 선정한 뒤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수 김정민, 재일동포 3세 가수와 10월 결혼



밴드 리플레이의 김정민(37)이 재일동포 3세인 일본 가수 다니루미코(28)씨와 10월 21일 결혼한다.

두 사람은 김정민이 진행하는 CBS 라디오 '12시에 만납시다'의 고정 게스트인 가수 박혜경의 소개로 만나 금속도 가까워졌다.

다니루미코 씨는 세이주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고 19살의 나이에 아이돌로 데뷔해 활약한 일본 가수 겸 모델. 가수로 여러 장의 싱글을 발표했고 영화 '분신사바'의 OST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는 21일 국내에 입국해 김정민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한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에 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기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요일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광주대 평생교육원 자연법칙 지리풍수학 무료 시민 공개 강의=

19일(토), 2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장묘법, 음·양액, 수막, 유산록 등 소개. 011-609-8117

▲장의학 저리풍수학회 무료 공개 강좌=19일(토) 장흥군 사회복지관, 26일(토) 호남대 쌍촌캠퍼스. 오후 2시부터 6시.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실 영상 강의 등. 011-608-4088

▲송원고 충동창회 기별 회장단 월례회=9일(수) 오후 7시 상무지구 고향토 숯불갈비. 010-7212-0085

▲광상 32회(일자) 동창회 모임=11일(금) 오후 8시 일곡지구 다도해 횟집. 011-9609-0055

▲당암 한재중 17회 동창회 정회=13일(일) 오후 10시30분 당암 한재중.

▲광주 효동초교 32회 동창회 월례회=16일(수) 오후 8시 우산동 화니onga를 삼겹살. 523-2550

▲순창 금파초 제 41회 동창회(회장 김형우) 모임=19일(토) 오후 5시 강천사 약수산장. 011-680-6075

▲금호교육문화회관 제 22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어학·교양·음악·컴퓨터·서화·국악 등 39개 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는 25일까지. 문의 360-6631~6.

▲사진회원 모집=사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동운철학원 역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풍수지리학·성평학. 376-9396

▲한미음장애인지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육

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화훼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 4305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장애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며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 단화,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종 평일 오후 4시~밤 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 동구 계립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페션·커튼·퀼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죽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쌍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부

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

5222  
▲한국웃음협회 회원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

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

607-1958

### 부동

▲오일순씨 별세 한재열·총열·정숙·정애씨 모친상 김병조씨 빙모상

=발인 10일(목) 그린장례식장 3분

향소 250-4403

▲김복수씨 별세 방원·춘원·광

철·성철·광례·점하·영자·옥자씨

부친상 김병탁·김진우·김양곤씨 빙

부상=발인 9일(수)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250-4405

## “축구 홈스테이…말은 안 통해도 우정 넘쳤다”

■한·중·일 어린이 축구 친선캠프 개최한 광주 YMCA 김경석 팀장

“세계 평화의 상징인 축구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어린이들이 우애를 다지기를 기원합니다.”

7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는 '조그마한 월드컵'이 열렸다. 광주 YMCA와 요코하마 YMCA, 상하이 YMCA 소년축구단 3개 팀이 '한·중·일 YMCA 소년친선축구경기'를 펼친 것.

28년째 연계행사...キャン핑 이벤트도

그라운드에서 아이들은 국가대표선수라도 된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 선수의 공을 빼앗으며 슛을 날렸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포옹과 악수를 잊지 않았고, 서로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냈다. 세 나라의 소년친선축구경기는 지난 1978년부터 계속된 연례행사. 올해로 벌써 28년째다.

아이들이 환한 웃음 속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광주 YMCA 김경석(29·사진) 체육팀장의 구슬땀이 숨어있었다. 지난 2000년부터 행사를

도맡아 진행하는 그는 세 나라의 아이들이 좀 더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축구경기를 하기 전 화순 한전휴양원에서 2박3일동안 캠핑을 한 것.

아이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갖가지 오락게임을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김 팀장은 “중국과 일본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 캠핑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날씨가 30도를 훨씬 넘는 무더운 날이었지만, 경기장은 아이들의 열띤 학년으로 뒤덮였다”면서 “귀국하더라도 전화나 편지로 연락을 주고 받을 만큼 서로 친해진 아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문화 이해가 평화의 출발

지난 5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친선 축구캠프에는 광주 YMCA 소년축구단 50여 명과 상하이 YMCA 16명, 요코하마 YMCA 12



'한·중·일 YMCA 소년친선축구경기'를 개최한 광주 YMCA 실무진들이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경석 팀체육팀장.

명 등 모두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광주의 일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팀별로 10여 차례의 축구 친선경기를 가진 뒤 귀국한다. 해마다 세 나라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데, 내년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김 팀장은 “언어와 민족은 달라도 서로 축구를 통해 우정을 다지는 것이 YMCA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 같다”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며 이해하는 것이 곧 ‘평화의 출발’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재벌가 며느리 1순위는 아나운서?



노현정 아나운서, 27일 현대家 정대선씨와 화촉

장은영·한성주·최원정·최윤정씨 등 재벌가 인연

업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BNG스틸의 수출팀 대리로 재직중이며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경제학과 유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서 입사해 '상상 플레이스' '스타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모아왔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고정주 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29)씨와 화제가 되고 있다.

신랑 정씨는 현대그룹 고정주영 회장의 4남인 고 정동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장은영 전 아나운서는 인기 여성그룹 펄시스터즈의 배인순과 결혼했던

최 전 회장과 27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해 세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한성주 아나운서도 1999년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들과 결혼해 여자 아나운서와 재벌가의 인연을 화제에 올렸다.

1994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2년 뒤 SBS 아나운서로서 방송계에 입문한 한성주 아나운서는 결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해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했다.

여자 아나운서가 기업가나 그 자제와 화족을 밝히는 경우도 심심찮다.

최원정 KBS 아나운서가 2004년 최



최원정 KBS 아나운서가 2004년 대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

황현경 KBS 아나운서도 2001년 '뉴스9'의 간판 앵커를 맡고 있다가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와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